2016년 성주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귀국 보고서

성주군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3

1 연수목적 3

2 연수국가 3

3 연수기간 3

4 연수인원 3

Ⅱ. 연수일정 4

Ⅲ. 연수국 현황 6

Ⅳ. 주요 방문지 8

Ⅴ. 연수국이 주는 시사점 20

Ⅵ. 연수후기 22

Ⅰ 연 수 개 요

1. 연수 목적

○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해외의 다양한 우수시책들에 대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 미국 서부 지역의 도시,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여 관광정책, 자연유산의 관광자원 활용정책, 도시 재생 사례 등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 견학과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수립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

2. 연수국가 : 미국 서부

3. 연수기간 : 2016. 10. 27(목) ~ 11. 3(목) 【6박 8일】

4. 연수인원 : 9명(의원 7, 수행직원 2)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계	9명		
성주군의회	의 장	배 재 만	
	부 의 장	김 명 석	
	의 원	배 명 호	
	의 원	백 철 현	
	의 원	곽 길 영	
	의 원	노 광 희	
	의 원	배 복 수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주 민 호	수행직원
	주 무 관	이 수 은	수행직원

Ⅱ 연 수 일 정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1일차 (10.27)	인 천 샌프란 시스코	KE 023	17:30 09:35 전 일	·인천 국제공항 출발 ******* 날짜 변경선 통과 *******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문화, 관광정책 등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 샌프란시스코 시청 등 방문 ·도시개발 및 관광산업화 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 지역의 랜드마크를 활용한 관광정책 사례 "금문교" 탐방 ·호텔투숙 및 휴식
2일차 (10.28)	샌프란 시스코 베이커스 필 드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국립공원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견학 - 요세미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방문 - 요세미티 국립공원 탐방 ·[베이커스 필드]로 이동 ·호텔투숙 및 휴식
3일차 (10.29)	바스토우 라플린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바스토우]로 이동 ·도시재생 사례 및 관광개발 우수지역 견학, 자료 수집 - 도시재생 우수사례 광산촌 "캘리코 은광촌" 견학 ·호텔투숙 및 휴식
4일차 (10.30)	그랜드 캐니언 캐 납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자원 활용화 사례 탐방 및 자료 수집 - 세계7대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 탐방 ·[캐납]으로 이동 ·호텔투숙 및 휴식

날 짜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5일차 (10.31)	캐 납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라스베 이거스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세계자연유산 관광자원 활용화 사례 탐방 및 자료 수집 -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 탐방 및 자료 수집 - 자이언 캐니언 국립공원 탐방 및 자료 수집 · [라스베이커스]로 이동 · 호텔투숙 및 휴식
6일차 (11.1)	로스엔 젤레스	차 량	전 일	·호텔 조식 ·문화, 관광정책 등 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 ·문화콘텐츠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 스타의 거리, 맨스차이니스 극장 등 · 호텔투숙 및 휴식
7일차 (11.2)	로스엔 젤레스	KE 018	11:00	·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 및 출국수속 ·로스앤젤레스 출발 ******* 날짜 변경선 통과 *******
8일차 (11.3)	인 천		17:40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미국 소개

○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캐나다와 멕시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정식명칭은 아메리카합중국이며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미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 상태였다가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 식민지 시절부터 많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고 미국 역시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지금의 다민족 국가를 이뤘지만 다양한 문화의 공존으로 인해 인종차별, 종교 갈등, 성 문제 등 미국사회의 3대 고질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현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이룬 대중문화와 예술 분야 그리고 스포츠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일반사항

○ 국 가 명 : 아메리카합중국(The United State of America)
○ 수　　도 : 워싱턴(Washington, D.C)
○ 인　　구 : 약 3억 2,137만명 (2015)
○ 면　　적 : 982만㎢ (세계 3위, 한반도의 약45배)
○ 행정구역 : 50개의 주(states)와 1개의 특별구(district)
○ 민족구성 : 백인(77.4%), 흑인(13.2%), 아시아계(5.4%), 원주민(1.4%), 기타(2.6%)
○ 종　　교 : 개신교(46.5%), 카톨릭(20.8%), 몰몬(1.6%), 유태교(1.9%), 기타(1.6%)

3.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대통령 중심제)
○ 의회구성 : 상·하 양원제
　- 상원 : 100석(임기 6년)
　- 하원 : 435석(임기 2년)
○ 주요정당 : 민주당(Democratic Party), 공화당(Republican Party)

4.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 : 17조 4,190억불(2014)
○ 1인당 GDP : 54,629불(2014)
○ 경제성장률(GDP기준) : 2.4%(2014)
○ 교　　역 : 상품수출 1조 6,326억불, 상품수입 : 2조 3,741억불(2014)
○ 산업구성 : 서비스(77.7%), 제조업(20.7%), 농업(1.6%) (2014)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이다.
○ 외교관계
　- 1882년(고종 19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로 외계관계 수립
　-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외교관계 중단
　- 1949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재수교
○ 수출·입 현황 : 수출 702억 달러, 수입 452억 달러(2014)
○ 교민현황 : 약 174,291만명(시민권자 143,583명,체류자 26,708명)
○ 1882년부터 시작된 한미관계는 197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누부신 경제발전에 힘입어 상호 호혜적 경제파트너로 발전해 나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한국의 국력신장에 힘입어 기존 안보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심화 시켜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등 한미 양국간 전략적 동맹관계가 발전되고 있다.

Ⅳ 주요 방문지

1 샌프란스코

◆ 목　　적 : 문화, 관광정책 등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6. 10. 27(목)

❑ 샌프란시스코 소개

○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서부의 항만도시로 태평양에 면하고 샌프란시스코 만 서부에 돌출한 반도 끝에 위치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바다로 되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이기도 한 샌프란시스코는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일 년 내내 초여름 같은 날씨에 아름다운 꽃들과 잔잔한 바다 그리고 야트막한 언덕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것은 "금"과 관련돼 있다. 1542년 처음 샌프란시스코 만이 발견될 당시만 해도 이곳은 인디언이 최고 10만 명이나 모여 살던 지역이었으나, 이 후 스페인, 멕시코의 지배를 거쳐 1847년 미국 땅이 되면서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 당시만 해도 5백 명 정도가 살았던 이 조그만 해안마을이 서부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은 "골드러시"가 계기였다. 1848년 샌프란시스코 북쪽 콜롬마에서 금광이 발견된 후 2년 새에 인구는 2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당시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다. 중국인과 호주 개척민이 유입된 것도 이때라 할 수 있다.

○ 황금시대가 끝난 후에도 만내의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태평양 연안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그 동안 대륙횡단철도, 파나마 운하의 개통 등 유리한 조건이 거듭되면서 식품, 섬유 등 각종 공업 또한 발달하게 되었다.

○ 1937년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와 금문교가 완성되어 인근 지역과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현재는 대도시권의 심장부를 이루며, 서부 지역의 경제·상공업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옛날부터 교육·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으며,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등 많은 대학과 연구소·문화시설이 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13번째 큰 도시로 경제, 문화, 교육, IT산업 등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로 성장하였고 미국 내에서도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도시 분위기와 안개, 금문교 그리고 비탈길을 달리는 케이블카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베스트 10중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시청

○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행정주심 구역 안에 있으며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으로 청사가 파괴되자 1913년 건설에 들어가 2년 만에 현재의 위치에 신축되었다.

○ 아서 브라운 주니어(ArthurBrownJr.)가 설계했으며, 청사의 총 면적은 4만 6,000㎡이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본단 94M의 돔 지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붕 중 하나이다. 청사 내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장 집무실(Mayor's Office)을 비롯해 시 의회(Board of Supervisors), 시 행정부(City Administrator) 등 샌프란

시스코 시 정부(San Francisco government)의 주요 기관이 입주해 있다. 마를린 먼로와 조디 마지오의 결혼식이 거행된 청사로비는 현재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워낙 다양하다. 각 주마다, 각 카운티마다 제 각각이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City&County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이는 보통의 미국 카운티 안에 수 십 개의 도시나 자치단체가 있는데 비해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11명의 의원을 각 소선거구에서 선출하며 시의원(Councillor)가 카운티의원(Supervisor)을 겸직하고, 총 11명의 의원들이 7개의 상임위원회에 복수적으로 배치되어 활동한다. 임기는 4년이다.

○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은 도시에 따라 의원(슈퍼바이저)의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어 입법 발의와 함께 세부사업계획 입안 등 집행권한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 개인적인 지지정당은 표출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지지정당을 표기하고 선거출마를 하지 않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금문교

○ 태평양과 만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금문교는 1937년 완공된 단일 경간(교량아치 등의 지주에서 지주까지)으로 세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다리로 이 다리를 보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 '인터네셔널 오렌지'라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샌프란시스코의 풍경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다리에는 연간 9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시즌에 가장 붐빈다.

○ 태평양의 거센 바람, 조수간만의 차, 교각간의 거리, 지진대에 8마일이나 근접해있는 지정학적 위치 등 1920년대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공사는 조셉스트라우의 설계와 미국은행 설립자인 지아니니의 자본으로 건설하게 되었다고 한다.

○ 전체 길이 2,737m,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67m로, 퀸 엘리자베스호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이다. 샌프란시스코만과 마린카운티를 연결하는 금문교를 건너려면 사람은 무료이지만 차는 통행료 $3을 지불해야 한다.

2 요세미티 국립공원

◆ 목　　적 : 국립공원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탐방

◆ 방문일자 : 2016. 10. 28(금)

○ 미서부의 3대 국립공원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에 위치해 있다. 현곡, 폭포, 호수, 반들반들한 돔 모양의 바위, 빙퇴석, U자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 면적 3,061㎢. 1890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중부, 시에라네바다산맥의 서쪽 사면일대에 전개되는 대자연공원이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의 하나이다.

○ 공원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남서부에 있는 머세드강의 상류이며, 빙식으로 생긴 거대한 엘 캐피탄·하프돔 등의 절벽과 브라이들베일·요세미티·네바다 등의 폭포가 있다.

○ 공원의 동쪽 경계는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주맥에 상당하며, 해발고도 3,000m의 고산이 이어져 있다. 공원의 서쪽과 남쪽의 입구 일대에는 세쿼이아의 거목들이 늘어서서 장관을 이룬다. 1984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 국립공원 내 캠핑장이 여러 곳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주변에 곰이 자주 출몰한다. 이 때문에 캠핑장 내에는 곰의 습격에 대비해서 음식을 넣어두는 철제보관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곰의 야생성을 지켜주기 위해, 곰마다 식별기를 부착시키고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게 3번 적발되면 그 곰을 사살한다고 한다.

3 캘리코 은광촌

◆ 목　　적 : 도시재생 우수사례 광산촌 견학

◆ 방문일자 : 2016. 10. 29(토)

○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캘리코 마을은 서부개척시대인 1881년을 기점으로 연간 1천200만 불 규모의 은 발굴로 인해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의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으나 1896년 갑작스런 은값의 하락으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고 이내 유령의 마을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 이 마을이 유령의 마을이라는 명칭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유래는 은을 캐던 많은 중국인들이 열악한 환경과 갖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사망하여 그들의 공동묘지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밤마다 통곡소리가 들린다 하여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 우리가 유령의 마을인 캘리코 은광촌을 방문한 시점이 미국의 전통인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말이었는데, 은광촌 입구가 가까워지면서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었다. 이들은 이곳 유령의 마을에서 할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관광객들로 모하비 사막에서 바이크를 타기도 하고 밤에는 야경을 즐긴다고 한다.

○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하기 위해 거쳐 가는 필수 코스인 덕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관광기념품 판매 등으로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판매사원들이 대부분 노인들인 것으로 보아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4 그랜드캐니언

◆ 목　　적 : 국립공원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탐방

◆ 방문일자 : 2016. 10. 30(일)

❑ 그랜드캐니언 소개

○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은 미국 애리조나주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곳에 형성된 대협곡으로 길이 447㎞, 너비 6㎞~30㎞, 깊이는 1.5km인데 폭이 넓고 깊은 협곡은 불가사의한 멋진 경관을 보여준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다채로운 색상의 단층, 높이 솟은 바위산과 형형색색의 기암괴석, 도도히 흘러가는 콜로라도 강이 어우러져 장엄한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1919년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록되었다.

○ 파웰 호수에서 미드 호수까지 447㎞에 이르는 그랜드캐니언 중에서도 사우스림은 가장 교통이 편한 곳이자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전체 관광객의 90%이상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 1,500m에 이르는 협곡의 벽에는 시생대 이후 20억년 동안의 많은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가히 '지질학 교과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메마르고 황량한 듯 하지만 콜로라도 소나무를 비롯한 식물 1500여 종, 조류 300여 종, 줄무늬다람쥐를 비롯한 포유류 9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 국립공원 운영 실태

○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의 연간 탐방객은 약 550만 명으로 이 중 4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랜드캐니언 관리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방문객들의 "안전"이라고 한다. 하이킹 사고만 연간 25,000건 정도라고 하며, 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한다.

○ 협곡 관리도 중요하지만 산림 보호를 위해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면적 이상의 지역까지 모니터링 한다. 또한 캠핑 등의 취사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산불이 방생하면 우선, 국립공원 총괄 책임자는 직속으로 관리하는 3대의 헬리콥터와 3대의 화재진압차량을 바로 출동시길 수 있다. 또 다른 산불진화 방법으로는 맞불을 놓는 것인데 효과가 높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일부러 태우는 화재식을 거행한다. 이 지역에서 산불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번개인데 나무를 태워놓으면 번개가 떨어져도 불이 나지 않는다.

○ 매우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하지만 죽은 나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 화재로 인해 손실되더라도 나무를 일부러 심지 않는다. 쓰러진 나무 사이에서도 새생명이 자라나고, 죽은 나무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국립공원을 관리한다.

5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 목　　적 : 국립공원의 성공적인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탐방

◆ 방문일자 : 2016. 10. 31(월)

❑ 브라이스캐니언

○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유타 주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수만개의 섬세한 첨탑을 가진 여러 개의 반원형 모형이 곳곳에 솟아있다. 이 기묘한 첨탑 하나하나는 모두 물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 바다 밑에 있을 때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지방에 우뚝 솟은 후 빗줄기와 흐르는 수력에 의해 다시 본래의 토사로 변하여 흘러내려 가는데 비교적 단단한 암석만 침식되지 않고 남아서 무수한 첨탑이 생긴 것이라고 한다.

○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1923년 준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고, 5년 후인 192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전체 면적은 3만6천여에이커지만 남북으로 21마일이나 되는 긴 지역이며 잘 포장된 도로가 공원 전체에 깔려 있어 13개나 되는 전망대에 들르기 편하다.

❑ 자이언캐니언

○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 중 하나인 자이언 캐니언은 1919년 11월 19일 총면적 586km^{2}으로 지정되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유타주의 세인트 조지 방향으로 474km 지점 애리조나 국경 근처, 라스베이거스에서 216km 거리에 있다.

○ 루즈벨트대통령 시절 기암절벽과 바위산을 남북으로 관통한 전망 터널 도로는 최고의 토목기술진을 동원해 난공사를 벌인 결과 1930년 1.76km의 터널을 뚫고 완공했다. 터널천공 시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약한 지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모두 인력으로만 뚫었는데 이는 당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경제활성화에 한몫을 했던 정책적인 토목공사로도 유명하다.

○ 커다란 버스를 타고 터널을 통과하려면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터널이 워낙 오래전에 아치형으로 뚫어놓은 것이라 대형차가 지나려면 왕복 2차선의 도로 한가운데를 달려야한다. 폭 238cm, 높이 425cm 이상의 차는 천정이 닿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형차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고 15달러를 내면 터널의 가운데로 달릴 수 있도록 다른 차를 통제해준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레인저(공원관리경찰)는 대형차가 오면 한가운데로 혼자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브라이스캐니언

자이언캐니언

6 로스앤젤레스

◆ 목　　적 : 문화콘텐츠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 수집

◆ 방문일자 : 2016. 11. 1(화)

❑ 로스앤젤레스

○ 뉴욕에 다음가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며 주변의 패서디나·컬버시티·잉글우드·샌타모니카·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700만을 넘어서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한다.

○ 1891년의 석유분출을 계기로 20세기에 들어서자 대규모의 유전 개발, 1914년의 파나마운하의 개통과 샌피드로만(灣)의 축항에 의한 해운의 발달,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의 발전, 교통로의 확충에 의한 관광 ·휴양객의 증가, 감귤류의 재배와 그 가공업의 발달 및 기계·화학·항공기·자동차 산업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 태평양의 현관 구실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중국·일본·필리핀 등 동양계 이민들이 많고, 과거 에스파냐·멕시코령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인·흑인의 인구 비율도 높아, 인종문제에 기인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 대책의 하나로, 시가지 재개발에 의한 거주환경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한국에서는 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우정의 종(鐘)'을 기증한 바 있다. 북서부의 할리우드·비벌리힐스에는 광대한 영화 스튜디오가 있고, 영화배우와 유명인사들의 고급 주택가로도 유명하며, 영화산업이 쇠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할리우드의 선셋 거리·할리우드 거리 등의 환락가는 여전히 몰락하지 않고 있다.

❑ 스타의 거리, 맨스차이니스 극장

○ 스타의 거리는 맨스 차이니스 극장 앞을 중심으로 한 할리우드 블루버드의 보도이다. 영화, 텔레비전 스타, 유명 뮤지션의 이름이 새겨진 별 모양의 브론즈 2500여 개가 거의 5km에 걸쳐 보도에 깔려 있다. 브론즈 판에 새겨진 각종 마크는 활동분야를 나타내고, 촬영기는 영화, TV세트는 TV, 레코드는 음악, 마이크는 라디오를 상징한다. 이곳에서 추억의 스타 이름을 찾아보면서 그들의 영화의 한 장면과 떠오르는 추억에 잠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맨스차이니스 극장은 '자동차 사회인 미국에서 눈길을 끌려면 건축이 눈에 뜨여야만 한다.'는 이론을 최초로 내놓은 역사적인 건축물이다. 최신 영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영화 개봉관이지만, 앞 마당에 스타들의 손과 발 모양을 본 뜬 부조를 보기 위해 대부분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스타의 거리만큼 알려진 콘크리트 바닥에는 약 170여 명의 영화계 명사들의 상징물들이 자유분방하게 표현 되어 있다.

V 연수국이 주는 시사점

❑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나라

○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공항 입국 수속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답답함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이든 빨리해야 하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달리,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며 자기의 일에만 전념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했다.

❑ 교통질서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와 2차 위반자에 대하여는 2배 가중처벌 함으로써 교통질서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

❑ 철저하게 관리되는 국립공원

○ 자연공원 내 인공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돌멩이 한, 나무 하나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모하비 사막을 가로지르는 동안 고속도로변에 끝없이 길게 이어진 철제 휀스를 보았다. 사막에도 동물은 많이 있다고 한다. 철제 휀스는 이들의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휴게시설 등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국립공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개척하는 나라

○ 네바다주 동남부 사막에 자리잡고 있는 라스베가스는 주변의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야경이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의 관광도시 중의 하나로 만들었으며, 특히 호텔투숙객

등 관광객들이 최대한 주변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구상하여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살 물건과 볼거리가 없다는 우리의 관광지 실태와 대조적이며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환경조건은 오히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든다.

❑ 투철한 에너지 절약정신

○ 전반적으로 미국의 야경은 화려하지 않다. 엄청난 석유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네온사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간판들을 보기 힘들다. 일반 집에서도 불을 밝게 켜지 않고 생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비교하면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의아해 할 정도이다.

❑ 실버세대의 왕성한 활동력

○ 자이언캐니언에서 국립공원 내 셔틀버스를 이용했는데 운전사가 80세 가까이 되 보이는 할머니였다. 버스를 직접 운전하며 친절히 설명을 해 주는 할머니의 모습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자연 그대로를 관광상품화한 나라

○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은 웅장한 자연이 주는 장관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를 최소한의 인위적인 관리로 운영함으로써 그 가치가 더해지는 듯하다. 자연의 순리에 맞추어 국립공원을 운영하면서 꾸미지 않은 대자연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방문객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층 더 느끼게 하고 있다.

V 연수 후기

이번 국외연수지는 선진 도시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정책 비교 분석으로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해 우리군의 관광지 및 상품 개발과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고 의원 개개인의 안목을 넓혀 활발한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함이며, 느낀점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작성하고자 한다.

〈배재만 의장〉

50개 주의 넓게 펼쳐진 광활한 땅을 가진 연방국가, 다양한 인종과 첨단과학 기술로 지구촌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금번 연수를 통해 대도시의 밝은 불빛과 광활한 사막의 정적 속에서도 미국은 자연 보존과 산업 개발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관리한다' 라는 취지 아래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을 가까이 보고선 대자연의 위대함과 자연의 보고를 가진 미국이 너무나 부러웠다.

불모의 땅 모하비 사막을 사이에 두고 번창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이거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시들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카지노산업 활성화로 전체인구의 1/3이상의 노동력이 호텔과 카지노 같은 유흥업에 종사하여 살고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영화산업, 카지노 산업 등을 기반으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니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과 도농복합 성주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김명석 부의장〉

이번 미서부 연수에서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 또는 신기루를 보았다.

모하비 사막 한 가운데 건설된 바스토우라는 도시로 철도와 도로 등이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텐저 아울렛(Tanger Outlet)이란 매장을 설립하여 미국내 각종 가격 저렴하고 질 좋은 메이커 의류 관련 물품으로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

현대식 건축물과는 별개로 모하비 사막내 폐광촌인 캘리코 은광촌도 서부 개척시대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그 시대의 생활상 체험과 차량, 바이크를 이용 사막을 질주하는 것을 보니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듯 하며 이 모든 것이 관광산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무형의 자원으로 유형의 재산을 만드는 창조의 과정을 보는 것 같아 미국의 관광상품화에 또 한번 감탄했다.

〈배명호 의원〉

200개 이상의 소규모 상점과 100개 이상의 식당이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 공급된 향신료와 야채, 저장식품 등 식료품이 구입 가능한 로스앤젤레스의 파머스 마켓(FAMERS MARKET).

우리나라의 시장과 같은 곳으로 생산자가 직접 과일을 팔거나 음식을 파는 곳으로 먹거리도 풍부하고 한국의 재래시장과 같이 볼거리와 다양한 메뉴를 가진 식당들이 즐비해 미국내에서도 농업이 번창한 곳으로 많은 싱싱한 가게들이 입점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농산물 생산과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백철현 의원〉

자연의 아름다움을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서울시의 5배의 광활한 면적에 다양한 고도의 산악지역별 자연생태 환경, 메타세콰이어 거목의 자생지, 빙하로 생성된 화강암 절벽과 폭포로 수놓아진 계곡,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개발된 시설물 등은 큰 산수화를 보는 듯 하며, 자연의 일부에 동화되고자 공원을 찾는 수많은 일반 및 외국 관광객과 가족 단위의 캠핑족들. 가히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착각이 들 정도다.

공원 내 캠프장 제한과 일체의 취사행위, 노상방뇨, 흡연금지, 소음규제 등 동·식물 보호와 자연친화적인 공원관리, 국립공원 이용자 안내와 이용에 따른 각종 정보 특히 관광객의 방문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공원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되고 있는 듯하다. 보존을 위한 방법론에 공원측과 이용자들이 적극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느끼는 게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혼자서 생각해 본다.

〈곽길영 의원〉

6박 8일 동안의 여정동안 선진국가인 미국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일부 선진시스템을 보고 체험함으로써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미국은 환경을 중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국가로, 자연 그대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관리,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미국의 또 다른 저력으로 느껴졌다.

그랜드캐니언,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미국의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원 내 건축물의 경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연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점은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 얻은 소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관광상품 개발 등 성주군 관광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할 것이다.

〈노광희 의원〉

의원 생활 중 처음 해외연수를 떠난 나에게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잘 보존되고 개발된 장엄한 자연풍광, 그 속에서 미소한 인간들의 넉넉한 몸부림과 일상생활. 모든 게 스케일이 남다른 미국의 인적·물적 자원들이 오늘의 미국을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넘치는 복지의 물결로 아이러니 하게도 많은 걸인들의 대도시 보행과 이상한 복장. 이 또한 다양성의 한 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박과 환락으로 불건전한 우리네 상식의 카지노가 미국에서는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넘쳐난다고 하니 고착화된 우리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냐고 반문하게 한다.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모하비 사막 위에 세워진 눈부신 유흥도시 라스베가스, 연간 4백만 명이 방문하는 수천 년 된 거목들이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 아름다운 첨탑의 향연 브라이스 캐니언, 신의 성지라 불리는 자이언캐니언 국립공원과 영화의 도시 LA. 가는 곳마다 모두 감탄과 부러움의 대상이다. 금번 연수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리라 확신한다.

〈배복수 의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관리한다'는 국립공원 취지에 맞추어 빙하기에서 시작해 현재에 이르는 무구한 세월의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계적 명성의 관광지임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 다양한 볼거리와 방문루트의 다변화로 미대륙의 광활한 스케일과 국립공원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자 태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하루 빨리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생명문화의 고장 '성주'가 전세계에 알려졌으면 한다.

미국의 도시와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잘 보존되고 있는 것에 감탄했으며, 우리도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어떨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비록 짧고 일정이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호 전문위원/이수은 주무관〉

광활한 땅과 수많은 사람, 선진 미국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되며 지구촌을 이끌어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든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환경 보존, 많은 물류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상의 대형 트레일러들, 밝은 얼굴 표정과 다소 거대한(뚱뚱한) 체격을 가진 많은 트레일러 운전자 들. 이 모든 것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다소 이해가 가는듯하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실감이 간다. 주민의 물질적·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쌓는데 이번 짧은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